

● ● ● 신년사

자발적인 경영합리화에 적극 동참, 저비용 고효능률 조직으로 거듭나야



戊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 역사에서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경제구조상의 시련기가 시작되는 한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 패턴의 문제 즉, 대기업을 위주로 한 차입경영방식에서 비롯된 대기업 부도와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의 노출에 따른 국가 신용도 추락으로 우리경제를 더이상 그대로 끌고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정부에 의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이 사회적, 경제적 모든 분야에서 강력하게 추진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에서는 우리 경제의 폭넓은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정책은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노·사·정의 합의와 국민 각 계층의 고통분담이 크게 강조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도 이에서 벗어나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 우리의 활로를 열어 나가는 슬기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협회는 다음과 같은 실천과제를 정하여 이를 올해의 경영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손해보험산업의 수지환경 악화에 따른 사원사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사원사와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자발적인 경영합리화에 모든 임직원이 적극 동참하는 마음의 자세로써 강도높은 초진축 경영을 실천해 나아갈 것입니다.

둘째, 예상되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저비용 고효능률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협회 임직원은 국가방재기관으

로서 대외 경쟁력을 갖춘다는 목표 아래 소아(小我)를 희생하는 한마음으로 일치 단결하여 내실을 강화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세째,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서는 상품, 서비스 및 자본이동 등 경제활동으로 모든 분야에서 시장 개방의 확대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번 IMF 구제금융에의 의존은 기왕에 기득권의 저항으로 뒤져온 시장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적자생존의 원리가 더욱 적나라하게 적용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맡은 일에 있어서 업무 능력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도록 평소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지니고 우리의 시야와 마음의 문을 열어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협회는 선진방재기관인 NFPA, UL, FM, IRI 등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얻어진 최신방재기술과 지식, 정보를 “방재와 보험”을 이용,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여 새로운 방재상식을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에도 협회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방재와 보험”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1998. 元旦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이 창 규